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52)(8/19/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5 장 삶을 전체를 고치려고 열심을 냄, 9-10 절

롬 11:36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전 8:6 -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전 12:6 -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전 15:28 -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9. 주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소리 높여 찬송하는 일만 하면 되고, 다른 일들은 할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먹거나 마시거나 잠잘 필요가 전혀 없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인 훈련들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힘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지만, 만일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도 영적인 힘을 맛보는 것은 드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10. 사람이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위로받기를 구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아울러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때에는 큰 일들에도 기뻐하지 않고, 작은 일들에도 슬퍼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롬 11:36; 고전 8:6, 고전 12:6, 고전 15:28), 하나님께는 썩어 없어지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으며, 도리어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고개만 한 번 끄덕여도 즉시 지체 없이 복종합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의 신앙은 당면한 육신적 삶의 현실 속에서 지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신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하며, 동시에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과 여러가지 모습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과도 씨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경험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실제적인 삶의 모습임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할 일을 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게 하신다.

사도바울은 회심한 이후에도 자신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죄성으로 인하여 깊이 고민하며 영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롬 7:23-24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하며 성화를 위해 투쟁해야 함을 알게 한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 11:28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상심한 마르다에게, “25. .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시면서 죽음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그렇다. 믿음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고 고백했다.

바울서신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에 나오는 권면들은 성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견디기 쉽지 않은 삶의 문제 속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성도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롬 12:9-13 - 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예수님은 마 5:10-12 에서,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했다.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4)고 권면했다.

그렇다. 신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지켜 나가며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사 43:1-2 -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근원적인 비결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요, 소망이며, 진정한 만족이 되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붙잡는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시 27:1)라고 고백하면서,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3-4)고 고백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당면한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며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2. 덧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3. 내전으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